

# “어닝서프라이즈 기대” vs “하반기 모멘텀 둔화 가능성”

## 증권가 SK하이닉스 전망

6곳, 목표주가 200만원 이상 상향  
H 노무라, 234만원으로 가장 높아  
BNK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필요”

#. 직장인 김광중(가명·37)씨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다시 쓴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다. 그는 지난해 2월 말 100만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을 5000만원어치 샀다가 이달 중순 110만원일 때 모두 팔았다.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130만원대까지 올랐다. 김씨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SK하이닉스를 놓고 김씨처럼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이 많다.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서다. 28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보다 0.62% 오른 130만원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132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외국인이 이달에만 SK하이닉스 주식을 1조3718억원(순매수) 넘게 끌어담았다. 개인들은 같은 기간 3조5062억원 어치를 팔았다.



ChatGPT로 생성한 SK하이닉스 HBM 반도체와 AI 수요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증권가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 통해 “SK하이닉스의 하반기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다.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기도 상향하지 않고 기존 130만원을 유지했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200만원을 웃도는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조5700억원, 37조61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각각 1%, 3% 상

회했다”면서도 “최근 4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던 시장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률은 D램 77.5%, 낸드 53.2%로 추정되지만,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이었다”며 “D램과 낸드 모두 단위당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설비 투자 증가세가 3월 이후 둔화되고 있고, 현물가격과 고정거래가격 간 격차도 축소되며 ASP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이클

후반 진입과 하반기 모멘텀 둔화를 고려하면 SK하이닉스는 저 PER 종목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과 ADR 발행 등 호재가 있지만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SK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다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곳은 이달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잡았다. 증권사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근거는 고공행진하는 실적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SK하이닉스의 2026년과 2027년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225조원, 334조원으로 상향한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37조6000억원으로 최근 컨센서스(시장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성과급 충당을 감안한 수정 영업이익은 42조원에 달해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도 지난 24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93만원에서 234만원으로 높였다. 노무라가 제시한 목표주가는 국내외 증권사가 내놓은 목표주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노무

라증권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적 전망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장기공급계약(LTA)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반영해 2026년 및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 4%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2026년 256조2280억원에서 279조5480억원으로, 2027년은 365조4290억원에서 378조8620억원으로 수정했다. 각각 전년 대비 492%, 36% 증가한 수치다. 노무라증권은 “메모리 업체들은 주요 고객사와 물량·가격·선급금 조건 측면에서 유리한 LTA를 논의 중이다”며 “계약이 성사돼 메모리 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메모리 업체의 높은 수익성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앙처리장치(CPU)가 강세를 보이면서 D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66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퇴직자금 노린 핀플루언서 ‘사기 주의보’

(금융+유명인)

금감원, 실시간 감시체계로 적발  
1인당 평균 피해 금액 약 1.8억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해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1~4월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한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 실제 채널로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실제 핀플루언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 댓글을 삭제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다. 아예 기

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한다. 이후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NS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허정은 기자 zelkova@

## 코스콤, AI로 개발 효율·운영 최적화

5세대 PowerBASE 시스템에 적용

코스콤 금융사업본부는 개발 효율화, 운영 최적화, 외부 사업화 등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개발·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개발 효율화 영역에서는 데이터 구조와 업무 규칙을 기반으로 한 코드 생성, 영향도 분석 자동화, C 기반 시스템의 Java 전환 등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코드 생성과 분석을 자동화하고, 변경 사항에 따른 영향 범위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등 개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구축 중인 5세대 PowerBASE 시스템에도 요건 분석부터 코드 변환, 테스트까지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코스콤 전경.

있다. C 코드를 Java로 변환 및 테스트하는 전 과정에 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해 반복 작업을 줄이고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스콤은 AI를 통해 현재 개발 생산성이 약 30% 향상된 가운데, 향후 운영 영역까지 확대 적용 시 전반적인 업무 효율이 약 40~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 금투협, 레버리지 인버스 사전 교육 개설

심화교육 1시간 과정 이수 필수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새롭게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 전 이수해야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은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2배) 상품의

출시(5월 22일 예정)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내달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심화교육 1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레버리지 ETP(ETF, E-TN 등 상장지수상품) 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 이번에 개설된 1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외 레버리지 ETP 가이드(1시간)를 포함해 총 2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강은 28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 한투증권, 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

한국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벤처기업협회와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등 벤처 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전문적인 금융 역량을 심분 활용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돕고 건강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왼쪽)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은 기자